



**2021~2023학년도
대입 이해와 진학지도**

1 2021 대입 개요

가 2021 대학입학전형 기본 일정

구 분		내 용
수시 모집	원서접수	2020. 9. 7.(월) ~ 11.(금)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20. 9. 12.(토) ~ 12.14.(월)(94일)
	합격자 발표	2020. 12. 15.(화) 까지
	합격자 등록	2020. 12. 16.(수) ~ 18.(금)(3일)
	수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20. 12. 23.(수) (합격자 발표 21시 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0. 12. 24.(목)
정시 모집	원서접수	2020. 12. 26.(토) ~ 30.(수)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21. 1. 2.(토) ~ 10.(일)(9일)
		나군 2021. 1. 11.(월) ~ 19.(화)(9일)
		다군 2021. 1. 20.(수) ~ 28.(목)(9일)
	합격자 발표	2021. 2. 1.(월) 까지
	합격자 등록	2021. 2. 2.(화) ~ 4.(목)(3일)
	정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21. 2. 16.(화) (합격자 발표 21시 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추가 모집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1. 2. 17.(수)
	원서접수/전형일/합격자 발표	2021. 2. 19.(금) ~ 25.(목) 21시 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등록 기간	2021. 2. 26.(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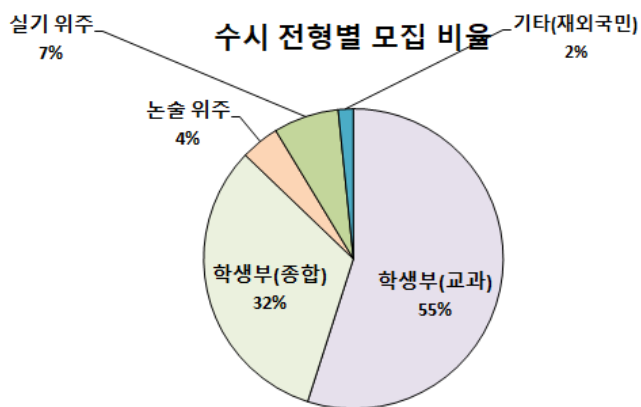
나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정시 모집에서 전년도 대비 983명 증가한 80,073명을 선발해 지속적인 정시 모집 인원 감소 추세에 반전이 일어났다. 정시 모집 인원 중 수능 위주 전형으로 70,771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전년도 69,291명에 비해 1,480명 증가한 인원이다. 반면 수시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1,402명 감소한 267,374명을 선발한다. 2021 대입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전년도보다 421명 감소한 146,924명을 선발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42.3%를 차지하고 있다. 논술 위주 전형이 전년도보다 984명 감소한 11,162명을 선발하여 가장 많은 모집인원 감소를 보여주는 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반적인 수시 모집 인원 감소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915명 증가한 86,083명을 선발하고 있다.

구분	전형유형	2021		2020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수시	학생부(교과)	146,924	42.3	147,345	42.4
	학생부(종합)	86,083	24.8	85,168	24.4
	논술 위주	11,162	3.2	12,146	3.5
	실기 위주	18,821	5.4	19,377	5.6
	기타(재외국민)	4,384	1.3	4,740	1.4
소계		267,374	77.0	268,776	77.3
정시	수능 위주	70,771	20.4	69,291	19.9
	실기 위주	8,356	2.4	8,968	2.6
	학생부(교과)	270	0.1	281	0.1
	학생부(종합)	424	0.1	436	0.1
	기타(재외국민)	252	0.0	114	0.0
소계		80,073	23.0	79,090	22.7
합계		347,447	100.0	347,866	100.0

다 수시 전형별 모집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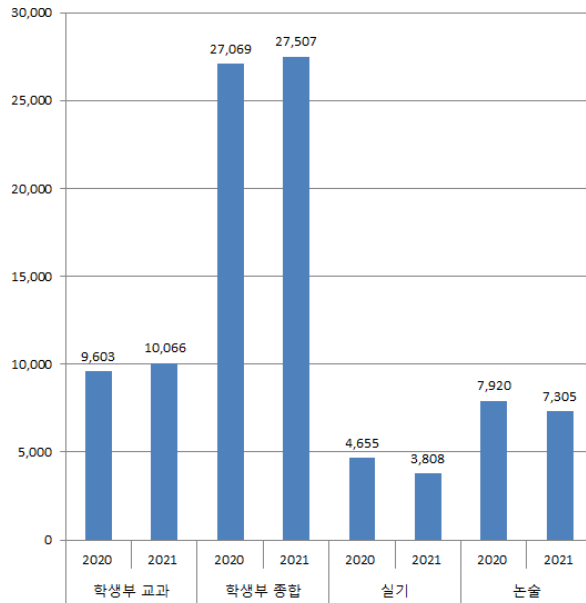
2021 대입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수시모집 전체 인원의 55%인 146,924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뒤를 이어 32%인 86,08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논술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은 각각 수시 모집인원의 4%와 7%인 11,162명과 18,821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87%의 학생을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시는 학생부를 기본으로 놓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구분	2021	2020	증감
학생부 교과	146,924	147,345	-421
학생부 종합	86,083	85,168	915
논술 위주	11,162	12,146	-984
실기 위주	18,821	19,377	-556
기타(재외국민)	4,384	4,740	-356
합계	267,374	268,776	-1,402

각 지역별 모집 현황은 전국적인 양상과 다소 차이가 나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에 따라 모집 유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들의 경우, 전국적인 모집 양상과 다소 차이가 나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1 대입 수시 모집에서 서울 지역 대학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인원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인원도 증가하였다.

2021 대입 수시모집 서울소재 대학 모집인원 변화



구분		인원
학생부 교과	2020	9,603
	2021	10,066
	증감	463
학생부 종합	2020	27,069
	2021	27,507
	증감	438
실기	2020	4,655
	2021	3,808
	증감	-847
논술	2020	7,920
	2021	7,305
	증감	-615

라 정시 군별 모집인원 현황(서울·인천·경기 수능 위주 전형)

대학명	가군	나군	다군	대학명	가군	나군	다군
가천대	390	219	474	숙명여대	80	511	.
가톨릭대	240	54	190	송실대	409	67	360
감리교신학대	.	46	.	신경대	.	1	31
강남대	220	225	33	신한대	47	7	151
건국대	430	645	96	아세아연합신학대	.	16	.
경기대	.	150	749	아주대	10	.	455
경인교대	.	251	.	안양대	.	175	131
경희대	611	725	.	연세대	.	1,085	.
고려대	.	756	.	용인대	10	386	.
광운대	220	90	309	을지대	134	116	10
국민대	614	251	185	이화여대	830	.	.
단국대	280	646	601	인천가톨릭대	.	.	19
대진대	197	221	59	인천대	447	.	380
덕성여대	213	190	.	인하대	316	334	162
동국대	434	377	.	장로회신학대	.	20	.
동덕여대	.	164	145	중앙대	343	319	409
루터대	.	.	8	차의과학대	.	35	55
명지대	224	258	198	총신대	73	.	.
삼육대	198	.	78	추계예술대	.	20	.
상명대	15	770	88	칼빈대	.	.	13
서강대	477	.	.	케이씨대	.	8	76
서경대	6	.	276	평택대	57	29	.
서울과학기술대	391	415	.	한경대	.	.	398

대학명	가군	나군	다군	대학명	가군	나군	다군
서울교대		157		한국산업기술대	67	130	132
서울대	736			한국성서대			33
서울시립대	550	36		한국외국어대	287	581	350
서울신학대	86			한국체육대	130		
서울여대	280	54	221	한국항공대	110	92	104
서울한영대			32	한성대	203		92
성결대	220			한세대	105		
성공회대		33	43	한신대	82		95
성균관대	573	537		한양대	193	585	
성신여대	377	160	40	한양대(ERICA)	377	180	
세종대		787		협성대	47	6	105
수원가톨릭대	60			홍익대	81	123	1,233

마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활용

정시모집에서 대다수의 대학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백분위만을 활용하는 대학이 103개로 가장 많으며, 표준점수만을 활용하는 대학은 40개 대학이다. 경동대를 비롯한 17개 대학은 정시모집에서 수능 등급만을 활용하므로 백분위나 표준점수 위주로 상담이 진행되는 정시전형에서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표	대학수	대학
등급	17	경동대, 광신대, 광주여대, 대구예술대, 루터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세한대, 송원대, 예원예술대, 유원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평택대, 한성대, 호남신학대, 호원대
백분위	103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남대, 감리교신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운대, 경인교대, 경일대, 경주대, 계명대, 공주대, 광주교대, 광주대, 국민대, 군산대, 극동대, 금강대, 금오공대, 김천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동신대, 동양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산교대, 삼육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안동대, 안양대, 영남대, 예수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위덕대, 을지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전주대, 제주국제대, 조선대, 중부대, 중원대, 진주교대, 차의과학대, 창신대, 창원대, 청주대, 초당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려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세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표준점수	40	경남과학기술대, 가톨릭대, 경상대, 경상대, 고신대, 공주교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경주),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외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서울장신대, 세종대, 수원가톨릭대, 숭실대, 신경대, 신라대, 영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한국국제대, 한국체육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양대(ERICA), 홍익대
등급+백분위	10	강릉원주대, 남서울대, 가천가톨릭대 목포대, 상명대, 신한대, 울산대, 장로회신학대, 제주대, 청운대
등급+표준점수	7	고신대, 부산가톨릭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연세대(서울), 한양대(서울)
백분위+표준점수	18	가톨릭대, 경북대, 고려대(서울),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서울), 동의대, 부산대, 서경대, 서울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인하대, 전북대, 전주교대, 중앙대, 한림대
등급+백분위+표준점수	9	건국대(서울), 경희대, 고려대(세종), 서울시립대, 연세대(서울), 연세대(미래), 울산대, 한국외대, 한양대(서울)

2 2021~2023 대입 변화 및 방향성

가 수능 과목 구조의 변화

교육부는 2019년 8월 17일자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 완화와 2015 교육과정의 문·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 취지 반영을 위하여 2022 수능부터 과목 구조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첫째, 국어·수학·직업탐구를 공통+선택형 구조로 개편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증시하는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학생 부담 완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어·수학의 선택과목간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택과목 배점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둘째, 사회/과학 탐구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하를 선택과목에 포함시켰다.

〈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

과목(영역)		2021 수능	2022 수능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작문, 언어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수학		가형(이과) : 수학Ⅰ, 확률과통계, 미적분 나형(문과)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문과/이과 구분 폐지) 공통 : 수학Ⅰ, 수학Ⅱ 선택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영어Ⅰ, 영어Ⅱ(절대평가)	영어Ⅰ, 영어Ⅱ(절대평가)
한국사		한국사(절대평가)	한국사(절대평가)
탐구	일반계	사회/과학 계열 중 택2 (계열 구분)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Ⅰ·Ⅱ)	(문과/이과 구분 폐지)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택2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Ⅰ·Ⅱ)
	직업계	직업계열 중 택2 10과목 (농·공·상업·수산·가사 5개 계열당 2씩)	전문공통 (성공적인직업생활) + 선택 (5개 계열 중 택1) 6과목 (성공적인직업생활,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의기초, 인간발달)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1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9과목 중 택1(절대평가)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나 수능 평가방법과 EBS 연계율 변화

수능의 평가방법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로 하고,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목 풀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은 2022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2021 수능		⇒	2022 수능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영어, 한국사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국어, 수학, 탐구

수능 출제 시 EBS 연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간접연계는 EBS교재의 지문과 주제·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 사용하는 것으로서, 영어지문 단순 암기 등 직접연계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 학교생활기록부 대입 반영의 변화

대입에서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항목 등을 정비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을 축소하고,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활동의 대입 반영을 폐지한다.

또한 고교·교육청의 학생부 평가·기록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여, 학생부 기재금지 위반 및 고교 프로파일내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고교·교원에게 조치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기재 금지어 목록을 추가, 단위 학교 및 교육청별 검증을 강화한다.

〈 학생부 기재금지사항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논문 등재, 도서 출간, 발명특허, 교외 경시대회, 해외 봉사활동, 공인어학시험, 교외수상실적, 인증 취득 등

〈 2021~2024 학생부 기재 변화 〉

구분	2021 대입	2022~2023 대입	2024 대입
교과	• 과목당 500자	(좌동)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좌동) (좌동) •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종합의견	• 연간 500자	(좌동)	(좌동)
비교과	자율활동	• 연간 500자	(좌동)
	동아리활동	• 연간 500자 • 정규동아리 기재 • 자율동아리 기재 • 청소년단체활동 기재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 소논문 기재 가능	(좌동) (좌동) • 자율동아리 연간 1개(30자) 기재 • 청소년단체활동 단체명만 기재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봉사활동	• 연간 500자(특기사항) •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 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좌동) (좌동) •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 연간 700자	(좌동)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 모든 교내수상	• 교내수상 학기당 1건(3년간 6건) 대입 반영
	독서활동	• 도서명과 저자	(좌동) • 대입 미반영

라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구분	2021	2022	2023
자기소개서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문항 및 글자 수 축소(4개 문항 5,000자→3개 문항 3,100자) (기재방법) 사실 중심 개조식보다는 학생의 경험과 생각을 확인 가능하게 서술형으로 기술 (문항통합) 재학기간 중 각각 '학업 경험'과 '교내 활동'을 쓰도록 한 1번·2번 문항은 통합 (문항개선) '배려, 나눔 등에 관한 실천사례'를 쓰도록 한 3번 문항은 학생의 개별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질문방식 개선 (글자수 제한) 1·2번 통합문항은 1,500자 이내로, 3번 및 4번 자율문항은 각각 800자 이내로 글자수 제한	
교사추천서		교사추천서 폐지	

마 대입전형 구조개편

1) 정시 수능위주 전형 확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위주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45% 이상인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21학년도 대비 5,625명(38%) 증가한 인원이다.

교육부가 정시 확대 대상 대학을 선정한 것은 고교유형 및 사교육 등 외부영향력이 큰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하되, 대학 여건을 감안하여 2022학년도 조기 달성을 유도하고 있다.

〈2023 대입 정시 확대 16개 대학〉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2) 학생부위주전형 및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논술위주전형 축소 정책에 맞춰 2020 대입에서 12,146명(전체 모집인원의 3.5%)을 선발하던 논술위주전형이 2021 대입에서는 11,162명(3.21%)을 선발한다.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비판받는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역시 폐지토록 유도하고 있다. 2020 대입에서 4,663명(1.34%)였던 전체 특기자 모집인원이 2021 대입에서는 3,935명(1.13%)으로 감소하고, 이 중 어학·글로벌 특기자 전형의 모집인원은 2020 대입에서 737명(0.21%)였던 것이 2021 대입에서는 710명(0.20%)으로 감소한다.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의 축소와 달리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전형을 통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2019학년도 정원내외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은 전국평균 11.1%(수도권 8.9%, 지방 12.6%)였다. 지역균형 선발은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으로 권고하고 교과성적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는 수도권대학은 20%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 이외 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 선발로 같음한다.

